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568호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금융]
김진균 수협은행장
"임중도원 새기고
새 역사 써내려 가자"
05

[라이프]
신세계百 경기점
MZ세대 저격
스포츠관 리뉴얼
L1

하늘 나는 자동차 서울 도심 위 떴다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시범비행하고 있는 유인 드론택시.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국토부

여의도서 유인용 드론택시 띄워
中 이항사 2인승급 기체 7분간 비행
상용화 위해 개발·제도 개선해야

공상과학 영화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열고 유인용 드론택시를 띄웠다고 밝혔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 기체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국내 최초다.

실증에는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기체(EH216) 1대가 투입됐다. 해발 50m 상공에서 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를 두 바퀴(총 3.6㎞) 돌아 약 7분간 비행했다.

시는 "국토부가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항공안전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시가 인프라를 지원, 유인용 드론택시를 서울 하늘에 띄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론택시용 기체(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 eVTOL)는 전기동력(친환경), 분산추진(저소음·안전), 수직이착륙(도심공간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즈를 포함 7개 국내·외 업체와 대학이 참여한 드론택시용 개발기체 모형 전시도 마련됐다.

국내 업체인 볼트라인, 드론월드는 자체기술로 개발 중인 기체의 비행 장면을 원격으로 중계했다. 미국 리프트에어크래프트사는 1인승급 기체(헥사)를 전시하고 레저·응급구조 등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선보였다.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지상교통의 한계를 맞은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드론택시 비행실증을 계기로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학,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UAM 분야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 조종·정비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시는 "드론택시 기체를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고 향후 소방용 항공기로 이용해 UAM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기체개발과 발맞춰 정부의 기체안전성 인증, 운항, 관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실증 준비 과정에서 드론택시 기체 안전성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경험을 축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로드맵에 따라 국내기업들에 신기술이 적용된 드론택시 기체의 비행 기회를 제공하고 상용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 국내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5년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에서 밝힌 과제를 산학연관 협업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드론택시를 서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지상교통의 한계를 해결할 차세대 대안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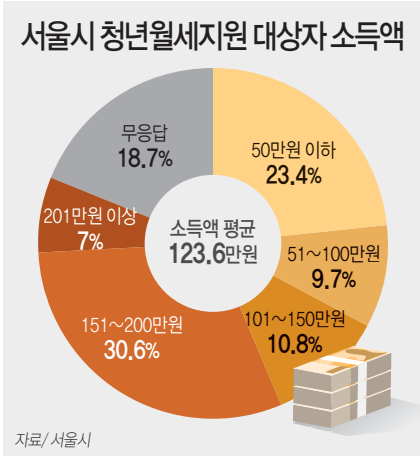
서울 월세지원 청년, 주거비로 소득 38% 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설문조사
평균 소득 124만원, 5명 중 1명 무직

서울에 사는 청년들은 소득의 약 40%를 주거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5000여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23만6000원이었으며, 매월 지출하는 주거비는 평균 46만5000원(월세 41만원, 관리비 5만5000원)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37.6%를 차지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집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71만4000원이었으며, 이들의 49.1%는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인 집에서 살고 있었다. 또 5명 중 1명(20.4%)은 무직이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첫 공모로 대상자를 선정해 9월부터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 전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주거공간 면적이 24㎡(7.3평) 이하인 경우가 66.2%, 14㎡(4.2평) 이하는 13.6%였다. 지하·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은 14.6%였다. 이들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6000원, 월 주거비는 43만3000원이었다.

신청 접수는 일반 부문과 코로나19 피해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코로나 피해 부문 신청자의 직종별 비율은 전문·자유직(28.3%), 판매·서비스(22.4%), 무직(23.7%) 순이었다. 특히 문화예술인과 스포츠시설, 학원, 여행·항공업계 종사자가 다수 지원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이들에게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강남순환도로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개통

오늘 오후 4시부터 2차로 개통
12월 말 양방향 전면 개통 예정

서울시는 12일 오후 4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매헌지하차도 수서 방향 2개 차로를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시는 반대 차선인 과천 방향 2개 차로의 가설 교량을 철거하고 공사를 마무리해 12월 말 양방향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매헌지하차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선암IC와 염곡동서지하차도(서초구 양재동) 사이에 양방향 5차로, 연장 900m로 건설됐다.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양재IC를 신호대기 없이 지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선암IC를 이용하는 차량과 경부고속도로(양재IC)를 이용하는 차량의 간섭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서초·강남 남부권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헌'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딴 것으로, 인근 양재 시민의숲에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다.

매헌지하차도 종점부 전경. /서울시

그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설 교량을 설치해 기존 차량흐름을 유지했으며,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공사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9개월 단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내년 9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단계 공사까지 완료되면 강남 지역 외곽의 차량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올여름 서울 생활 기온, 관측소보다 2도 높아

기온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
관악산·북한산 일대 기온 낮아

올해 여름 서울시민들의 생활환경 기온이 기상관측소와 비교해 2도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5~8월 시내 도시데이터 센서(S·Dot) 850여 개를 이용해 측정한 서울의 생활환경기온은 평균 24.9도로 종로구에 있는 기상관측소 평균기온 23.1도를 1.8도 웃돌았다고 11일 밝혔다.

S·Dot은 주로 CCTV 지지대나 가로등, 주민센터에 설치된 도심 데이터 수집 장치다. 표준화된 환경의 데이터를 모으는 기상관측소와 달리 인접한 건물이나 도로·에어컨 등 주거·상업 환경의 영향이 반영된다.

5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은 종로였다. 평균기온 21도로,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에서 측정된 18.2도와 1.9도 차이가 났다. 5~8월 중 일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6월 22일 종로구 창신동 일대는 서울 기상관측소보다 약 4도 높은 38.5도를 기록했다.

광진구·중랑구 일대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올림픽로, 천호동, 성수동, 노량진 등지도 종로와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관악산·북한산 일대와 강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았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농업기계 임대 31.4% 증가

파주시의 농업기계 임대실적이 올해 대폭 증가했다. 시는 10월말 기준 파주시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3793대로 지난해 전체 실적 2886대보다 31.4%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인원도 2847명으로 지난해 2347명보다 21.3%가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안성기 기자 ask9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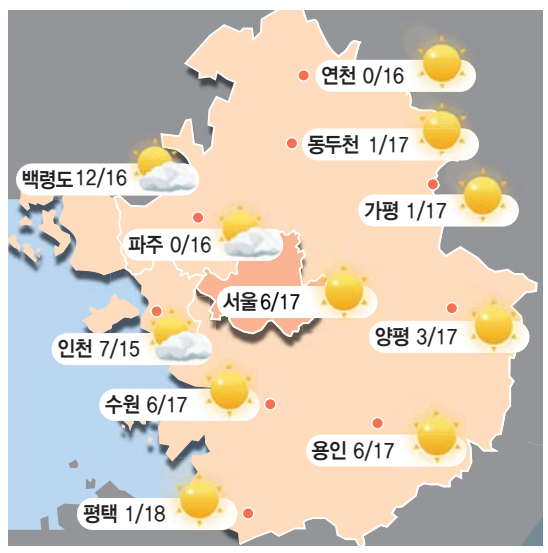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9 | 해짐 / 17:23

11월 12일 (木)
음력 : 9월 27일

수도권 날씨
6 ~ 1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